

초등 5학년  
독후활동지 (교사용)

책을 읽고 생각을 넓혀요



블랙리스트

사라지는 아이들의 비밀

글 오혜원 | 그림 이갑규

스폰북



# 블랙리스트

사라지는 아이들의 비밀

- 글: 오혜원
- 그림: 이갑규
- 출판사: 스폰북
- 정가: 11,000원
- 분량: 180쪽
- 대상: 초등 고학년
- 교과 연계: [국어 5-1] 가 4. 작품에 대한 생각  
[국어 5-2] 가 1. 문학이 주는 감동

## 책 소개

나라에서는 사춘기 아이들의 고민과 방향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여겨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요주의 인물로 규정해 머리에 칩을 넣거나 백신 주사를 맞춰 통제하려고 해요. 이한은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쫓기는 친구를 돕다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요. 블랙리스트 5단계까지 오르면 머리에 칩을 넣는 수술을 받아야 하지요. 이한은 위험을 무릅쓰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조사하다가 거대한 음모를 알게 돼요. 아이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 책의 앞뒤 표지의 제목, 글귀, 그림을 살펴봅시다.

1 《블랙리스트》의 앞표지와 제목을 보고 드는 생각과 느낌을 써 보세요.



| 번호 | 앞표지와 제목을 보며 드는 생각 |
|----|-------------------|
| 1  |                   |
| 2  |                   |
| 3  |                   |



• 《블랙리스트》의 뒷표지에 쓰인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는 마음껏 고민하며  
성장할 권리가 있어요!

나라에서는 사춘기 아이들의 고민과 방황이  
사회를 어지럽힌다고 여기지요.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을 요주의 인물로 규정해  
머리에 칩을 넣거나 백신 주사를 맞춰 통제하려고 해요.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을까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성장해 나가는  
소중한 시기에 대해 생각해 보아요.

**2** 나라에서는 사춘기 아이들의 어떤 권리를 막고 있나요?

---

---

**3**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일이 있었을지 예상해 보세요.

---

---

---



## 독서 중

아래 설명을 듣고 질문에 답해 보세요.

[21~22쪽]

입을 막고 기침을 하던 시우는 내 눈치를 보며 옷에 침을 닦았다.

“바이러스라면 어차피 벌써 전염되었을 건데 뭐.”

“미안해, 갈 데가 없었어.”

“괜찮아, 너희 엄마도 경찰이 너를 찾고 있는 것 아서?”

엄마라는 말을 듣자 시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나는 시우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다.

“( ① )에 가셨어. 지금쯤 연락받고 집에 계실 거야.”

“넌 이불 덮고 ( ② )에 누워 있어. 내가 너희 엄마를 만나고 올게.”

겁에 질린 시우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떨렸다.

“금방 올게. 내가 누구냐!”

나는 시우를 안심시키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보안 띠 밑으로 기어 나가서 전자 동 슬라이더를 타고 시우가 사는 아파트로 갔다.

아파트 입구에는 벌써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나는 아파트 뒤쪽 베란다가 보이는 곳으로 갔다. 베란다 쪽은 화단과 울타리가 있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았다. 마침 3층에 사는 시우네 엄마가 베란다에서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1** 빈칸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

---

**2** 이한은 시우 엄마에게 시우의 위치를 어떻게 알렸나요?

---

**3** 이한은 시우 엄마에게 시우의 위치를 알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이한의 앞으로 무언가 떨어지는데요, 시우네 엄마는 이한이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



독서 중

다음 글을 참고해서 나만의 지하 벙커를 그려 보세요.

[17쪽]

시우, 희원이와 함께 이곳을 발견했을 때 우리 셋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늘 꿈꾸어 오던 우리만의 본부를 발견한 것만 같았다. 개인용 침대와 거실 탁자, 의자, 싱크대, 서랍장도 있었다. 그때부터 우리는 틈만 나면 비상식량, 침낭 등 필요한 것들을 하나둘 이곳에 갖다 놓았다. 무슨 일이든 꾸미고 싶도록 만드는 곳이었다.



## 독서 후

《블랙리스트》의 일부입니다. 여러분이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15-16쪽]

“너희 집 앞이야, 빨리 문 좀 열어.”

시우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렸다. 서둘러 석현이네 집을 나왔다. 석현이는 내가 나가도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니 우리 집 문 앞에 창백한 얼굴을 한 시우가 너절한 구식 옷을 입고 떨고 있었다. 우리는 주위를 살핀 뒤에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야?”

“나를 잡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어. 나 좀 숨겨 줘.”

“누가? 뭇 때문에?”

시우는 목소리를 낮추라며 손으로 내 입을 막았다.

“야, 너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나랑 접촉하면 어떡해?”

울 것 같은 시우 뒤로 로봇이 보였다. 시우를 끌고 방으로 들어가 재빨리 방문을 잠갔다.

“나를 격리시키려나 봐. 어디로 데려간다고 했어. 도와줄 거지?”

바이러스 환자가 내 앞에 있었다. 나도 바이러스에 감염될지도 몰랐다.

“너 언제부터 아팠던 거야? 어디서 전염된 건데?”

“나도 몰라. 엄마하고 병원 다녀왔는데 그 뒤로 아파.”

“병원에는 왜 갔는데?”

“호르몬 때문에 주사 맞고 왔어.”

시우의 상황이 안 좋았다. 잡혀가면 어떤 실험 대상이 될지 모를 일이었다. 나는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다. 고민할 때마다 하는 버릇이었다.

“미안해, 이런 부탁을 해서. 안 내키면 나 혼자 도망갈 수도 있어.”

나라면,

---



---



---



---



## 독서 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이유도 써 보세요.

[26쪽]

시우가 먹는 약은 뭘까? 호르몬 때문에 주사를 맞고 나서부터 먹었다고 했는데 이상했다. 몸이 약하다고 끌려가고, 사고를 저지르면 블랙리스트에 올라 끌려가고, 우리 반에서 끌려가지 않고 끝까지 남는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하다가 석현이가 한 말이 떠올랐다.

‘수술받고 마음 편히 살든지.’

이렇게 도망치며 사는 것보다 일찍 수술받고 칩에 내장된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사는 건 어떨까? 내 수준에서 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생각들이 줄줄 흘러나올지도 모른다. 고민도 없어 좋지 않을까? 보기 싫은 로봇의 감시를 받지 않아도 되니 말이다.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드는 4학년 때 머리에 칩을 넣는 수술을 시키자는 어른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칩을 빼내면 된다는 것이다. 사춘기를 방황 없이 보내고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나는,

-----  
-----  
-----





## 독서 후

다음은 《블랙리스트》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 그림 | 장면 설명하기 |
|----|---------|
|    |         |
|    |         |
|    |         |



## 독서 후

다음은 《블랙리스트》의 주요 장면입니다. 그림을 보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써 보세요.

| 그림                                                                                  | 장면 설명하기 |
|-------------------------------------------------------------------------------------|---------|
|    |         |
|  |         |



## 독서 후

《블랙리스트》 내용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답하세요.



1 집을 벗어나 이한과 시우가 간 곳은 어디인가요?

-----

2 블랙리스트는 총 몇 단계까지 있나요?

-----

3 석현이는 왜 잡혀갔나요?

-----

4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고민이 있나요? 마음이 확장되고 성장해 가는 과정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을 복잡하게 만드는 고민거리를 써 보세요.

-----

